

춘천 성시신문

The Chun Cheon Holy City News

발행인: 오 승 통
편집인: 박 상 호

2. 세계대회의 춘천

3. 100인 인물탐구
(조남진 장로와 함께)

4. 인도 비하르

6. 웹방의 시대

www.holycity.or.kr

2004년 8월 1일

(1998년 9월 15일 창간) 제69호

강원도를 그리스도의 품에~

백두대간 햇불기도회!

미래의 땅 강원도의 복음화와 발전을 위하여 2천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장이 열린다. 오는 8월 29일(주일) 오후 6시~8시 강릉종합심내체육관에서 '백두대간 햇불기도회'가 열린다.

이날은 교회연합의 축제, 경배와 찬양의 축제, 기도와 말씀으로 나누는 은혜의 축제, 그리고 사랑의 장기기증운동으로 순서가 진행되는데 특별히 설교는 1회 강원도 연합 회장을 역임한 춘천 중앙감리교회의 권오서 감독(동부연회)이 맡게 된다.

새천년과 함께 시작한 햇불기도회는 강원도 전역의 기독교연합회들이 함께 모이는 행사이다. 전국에서 최초로 시도된 특별한 연합운동으로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며 '민족화합과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 분단의 아픔을 가진 강원도에서 평화의 햇불을 들고자 시작된 본 집회는 대회장 한재덕 목사, 명예대회장은 김진선 지사, 준비위원장인 정윤희 목사 등이 임원들로 수고하고 있으며 차기 대회장은 춘천의 동부교회 임신영 목사가 맡을 예정이라고 한다.

햇불기도회는 이런 맥락 속에서 '세계 속의 강원도'로 강원도 속의 세계'로 발전하고 한국의 중심도가 되기 위하여, 구국합심기도를 위하여, 2014년 동계올림픽 강원도 유치를 위하여, 그리고 평화적인 남북통일을 위하여,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원도의 복음화와 도내 2천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의미있는 대 집회인 것이다.

따라서 '백두대간 햇불기도회'는 사랑의 장기기증운동을 통하여 1. 기독교 정신인 사랑의 실천 2. 고통과 아픔 그리고 생명을 함께 나누는 사랑의 현장 3. 강원도를 사랑하는 기독교인들의 삶의 표본 등을 행사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제 강원도내 모든 기독교인과 도민들의 힘을 하나로 묶어 국가의 발전과 민족을 융성케 하는 일에 이바지해야 할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며 일어날 때이다. 우리 강원도로부터 성령의 불길이 퍼져나가고 사랑과 평화가 증명한 한반도가 되길 바란다. (편집부)

**"낮엔 헤쳐넘 맘엔 달처럼"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강원도가 되게 하소서 아멘.**



성시화를 위한 제2회 춘천선교대회 D-64

2004년 10월 3일(일)~6일(수) 성시화를 위한 제2회 춘천선교대회가 동부장로교회에서 열릴 예정이며, 피영민 목사(강남중앙침례교회)가 주 강사로 초빙되어 집회를 갖게 되며 춘천 출신의 선교사들의 선교보고와 동영상에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춘천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깨끗한 도시, 거룩한 도시로 만들고, 춘천을 통해 전국과 세계로 선교의 열매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춘천의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의 뜨거운 기도와 참여를 바란다. (편집부)

기독교 소양교회

"희년의 감사·미래의 비전"
- 제자 삼는 교회(마28:19)

위임목사 **이 원 호**

부목사 김철영(행정)
나영석(교구) 정병기(교구)
이석윤(음악) 이윤복(교육)
협동목사 이영은 백태호

200-030 춘천시 요선동 114 ☎ 033) 253-2004~5, 251-2006, 255-1808, http://www.soyang.or.kr

나침반

교회갱신·부흥·복음화운동
교회연합일치운동
새로운 도시 모범시민운동
세계복음화 기도운동

이달의 말씀

시편 (Psalms) 144장 12~15절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그 장성한 나루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인의 기도

· 현대의 연쇄 살인마 유명철 사건

현대의 이기적인 세상 문화 속에서 양산된 탕자의 본모습과도 같다. 주여 이시대의 젊은이들에게 참된 영적 회개가 일어나게 하소서

· 조영익 국방장관의 교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절실한 이때 주님이 이 나라의 목자가 되시옵소서

· 이명박 시장의 서울봉천사건

기독교청년집회에서 서울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서로 인한 일과만과의 목소리를. 그러나 서울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의 천명이 아닐까

· 미군기지의 춘천에서의 이전

2005년까지 이전한다니 춘천이 더욱 아름다운 평화의 도시, 복음의 도시로 거듭나게 하소서

CBS 춘천방송

www.chcbs.co.kr 93.7 MHz

월드비전 World Vision

강원지부
춘천종합사회복지관

www.gangwon.worldvision.or.kr

· 한시금(10,000원) 차동아래 및 지도모
· 배시금(20,000원) 후원이 가능합니다.
· 늘시금(30,000원) ☎ 254-7244

원고투고 및 광고문의

보낸곳: (우)200-091 춘천시 효자1동 373-90 춘천성시신문 앞

☎ 256, 257-1260
011-361-2004
010-7347-9004

제1회 성시화운동 세계대회의 의미

2004년 5월29일~6월2일에 개최된 제1회 성시화운동 세계대회(포항)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있는 진화였다. 조은제 목사(춘천출리클럽 대표), 조영춘 목사(춘천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정재호 목사(춘천성시화운동본부 사무차장), 최상도 목사(성시화연구소장)를 비롯한 10여명의 지체들이 춘천을 대표로 참여하여 대회 전체를 돌아보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에 논의되었던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대회를 [의미]면에서

춘천 대표로 참여한 우리들로서는 1972년 이 도시에 시작된 성시화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진행되었던 그동안의 열매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되었다. 더구나 포항대회는 국내 22개 도시와 미국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하와이 호놀룰루, 영국 런던, 독일 하이델베르크, 일본 도쿄, 중국 베이징, 필리핀 마닐라 등 해외 9개 도시가 참여하는 세계 최초의 성시화 대회였다. 우리는 이 대회를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에 대한 깊은 감격이 있었다. 주님은 2000년 전 보잘 것 없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나 그 작은 동리를 위대하게 사용하셨듯, 이 시대에도 30년 전에 꾸었던 우리들 믿음의 선배들의 소박한 꿈과 헌신을 사랑하시어 더욱 풍성하게 돌려주셨다. 이 얼마나 의미있는 일인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분단 강원도의 작은 도시 춘천에서 시작된 거룩한 도시의 꿈을 하나님은 전 세계로 스승으로 확산시켜 가신다. 우리는 이 일의 위대한 통로로 사용된 것이다. 앞으로도 우리를 작은 밀알로 사용하소서.

▶조직적인 [준비]면에서

포항집회는 포항지역 385개 교회와 15,000여명의 크리스찬들이 연합하여 일주일간의 아름다운 대회로 치러졌다. 일주일이란 기간은 짧은 기간이 아니다. 사실상 포항은 성시화 운동을 위해 조직을 갖춘 지 2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이례적인 모범사례로 꼽을 수 있다.

포항이 비록 성시화라는 개념에는 익숙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미 오래전부터 기도로 준비되었고 교회들의 연합이 어느 도시보다도 잘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체계적인 준비는 우리가 묵었던 게스트하우스에서도 드러난다. 산학협동의 상징인 포항공대의 100개 이상의 객실을 예약하였으며, 한식과 양식의 양질의 식사는 들보였으며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주었다. 또한 포항과 관련된 주요 인사들이 자발적으로 집회에 참여하였고 시 당국의 적극적인 협력이 이루어졌다.

▶세대간의 [균형]면에서

대개 타도시의 연합집회에서는 성인들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성시화 운동은 춘천에서의 출발에서부터 세대간의 총체적 접근의식이 있었다. 우리는 이미 1996년 집회부터 어린이집회, 청소년집회, 대학생집회, 선교집회, 북한관련행사를 기획한 바 있다.

이러한 성시화 운동 초기 정신이 포항에서도 그대로 계승되어 보다 대규모로 1만 여명의 중고교생과 대학생들이 따로 모임을 가졌으며 그들을 중심으로 찬양집회, 말씀이 준비되었다. 아마 앞으로 아랫세대들은 보다 자연스럽게 윗세대의 성시화 운동을 배우게 될 것이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성시화운동의 열매 또한 더 달고 보다 많이 맺힐 것을 기대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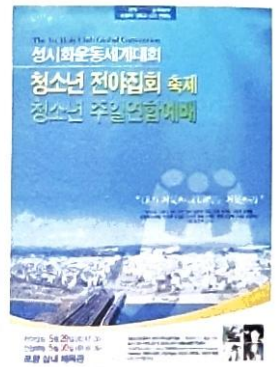


▶구체적인 [파급효과]면에서

포항성시화운동본부에 따르면 포항성시화운동이 시작된 2002년에는 유흥업소가 600개였으나 지금은 400개로 줄었으며, 이혼율이 국내 도시 가운데 1위였으나 6위로 떨어졌고, 범죄율도 4위에서 9위로 낮아졌다고 밝히고 있다. 이것은 다른 나라 성시화 운동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성시화운동이란 개념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역사적으로 영적 대부분이 일어날 때 사회적인 긍정적 파급효과가 나타난다. 1884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이 그 좋은 사례이다. 로스앤젤레스는 100여개 이상의 다른 문화와 언어에 속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도시이다. 올림픽을 앞두고 이 도시의 1,600여개 교회가 연합하여 수시로 기도회를 가지며 총력 진도에 나섰다. 또한 전 세계적인 영적 네트워크가 가동되었고, 우리나라에서 열린 국제기도대회에서는 30여 만명이 모여 로스앤젤레스를 위하여 특별한 기도하였다. 이에 올림픽이 끝난 후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의 발표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총기 사고 등으로 매일 70여명이 피살되었으나 올림픽 경기기간 2주일동안에는 피살당한

시체가 한 구도 없었다고 한다. 이것을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 세계성시화대회 이후의 보다 영적으로 성숙해진 포항을 기대해 본다.



▶연합집회 이후의 [방향모색]면에서

연합집회 이외의 낮 시간에는 성시화와 관련된 특강과 각 도시의 사례발표, 연구발표가 있었다. 이 또한 국제대회를 치러 본 전문 인력들의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된다. 우리 도시가 제일 먼저 사례발표를 하였으며, 이어 각 도시 지도자들의 나열대로의 소감과 사례발표가 이어졌다.

교제차원에서 의미있는 시도로 생각되면 서로 이 부분에서의 아쉬움을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다. 성시화운동의 또 다른 측면은 연구기능의 강화이다. 어떻게 전략적이고 효과적으로 성시화의 꿈을 이룰 수 있을지를 각 도시마다 고민하고, 그 사례들의 공동 본모를 통해 타도시가 본을 삼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 집에 있어서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산하의 연구소 설립은 초보적인 형태로서도 의미있는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 보다 깊은 운동의 방향성에 대한 모색이 있어야 한다.

이밖에도 성시화운동의 확산을 위한 가정(성시학교)의 필요성에 공감하게 되었다. 성시학교는 지금까지 시도된 성시화운동의 성서적, 문화적 맥락을 집약하여 가장 단시간 내에 모든 세대에 전수하기 위한 교육체제이다.

1996년 춘천성시화운동본부가 설립된 이후 간헐적이거나 초보적인 형태로 성시화 교육이 이루어졌으나 보다 체계적인 단기학교의 선치가 전진하다 하겠다. 또한 전문그룹의 탄생이 요구되고 있다. 성시화 운동은 단순히 영혼구원개념에서 벗어나 영혼구원과 아울러 이 도시 전체의 사회, 문화가 주님의 것임을 선포하는 운동으로 나아가고 있다. 따라서 각 분야별 전문가 그룹이 양성되어야 하고, 상호 밀접하게 네트워크가 되어야 할 필요성을 공감하게 되었다.

끝으로 성시화 대회는 [올림픽] 개념처럼 각 도시를 돌아가며 치러질 [성시화 올림픽]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스 아테네가 제1회 올림픽의 도시가 되었던 것처럼 춘천은 모든 도시 앞에 성시화의 발상지로서 기억될 것이다. 이에 춘천은 더욱 분명한 역사적식을 가지고 현대의 모든 도시와 주님 앞에 신실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모델 도시로서 서야 할 책임을 느낀다. (편집부)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춘천교회

(동남아선교회 주관)

춘천성결교회는

1.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2.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3. 이웃을 사랑으로 돌아보는 교회입니다.
4. 주일을 성수하며 예배를 통한 영혼의 회복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5. 정직한 예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담임목사 오승봉

200-093 강원도 춘천시 효자3동 114-140번지
PHONE : 033-257-6117/8 목회상담 : 257-6119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교회이전)



두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
주수하는 사람들 마음의 교단

대헌에 수교상호회 늘사랑교회

섬기는 이 정 재 호

200-936 강원도 춘천시 서시동 743-7
☎ 033-261-9101
www.everloving.or.kr

춘천 영적지도자 100인에게 듣는다.

조 남 진 장로

★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초대 본부장으로 시무하셨던 조남진 장로와의 인터뷰입니다.

장: 장로님 반갑습니다. 요즘 평소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조: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요즘 노인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인 사랑의 집 사역(무로점심제)을 가본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장: 장로님께서 춘천성시화운동에 참 많이 애쓰고 한 수 있습니다. 1972년 춘천성시화운동이 시작되게 된 직접적인 계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조: 성시화운동을 처음부터 계획하고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70년도에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었는데 아는 것이 너무 없어서 그 당시 대학생 선교단체(CCC) 운수길 간사를 모시고 저희 집에서 4사람이 모여 성경 공부할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소문이 나면서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20,30명 늘어나게 되었고, 이것을 대학생 선교단체(CCC) 대교이었던 김준곤 목사님께서 전해 듣고 평신도 지도자들이 이렇게 열심을 내면, 춘천을 스위스 제네바와 같은 성시로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하시고 춘천에 내려와 저희들을 많이 격려했습니다. 이것이 춘천성시화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입니다.

장: 춘천성시화운동이 시작된 지 벌써 30여년이 지났습니다. 성시화운동은 성경 요시면서 가장 감명 깊었던 사건이나 어찌한 일이 있었다면 무엇일까요?

조: 먼저 가장 안타까웠던 일은, 72년도의 성시회집회 이후 복자들을 중심으로 구 성되었던 성시운동위원회가 해체되고, CCC와 복자들과의 긴밀한 관계도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그 체제가 지속되었더라면 춘천성시화운동은 더욱 크게 발전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신도들을 중심으로 성시화운동은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 예수전도단 창시자 로스 복사, 중앙대학교 최재선 박사 등 우리나라에서 영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는 분들을 모셔다 신앙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실을 맺어서 74년도에는 조용기 복사를 모시고 성시화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운동을 전개했던 경험들이 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감명 깊었던 사건입니다. 저는 이 시기가 춘천성시화운동의 역사에 있어서 제1단계라고 봅니다. 제2단계는 1996년 전웅태 집권장님과 안인평 법원장님들이 중심이 되어, 춘천성시화운동이 크게 일어나면서 춘천기독교연합회와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창립되었고, 성시신분도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팀이 임원들이 구성되었으니까, 춘천성시화운동의 제3단계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춘천성시화운동이 불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영: 제가 이번에 포항에서 열렸던 제1회 세계성시화대회에 참여해 보니, 포항에서는 성시화운동을 도시성경화운동으로 정의한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시화운동을 부르짖지만, 성시화 운동이 무엇인지? 성시화 된 춘천의 미래상이 무엇인지? 막연합니다. 장로님께서 생각하시는 성시화 된 춘천의 모습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조: 성시화운동이 처음 시작될 때, 김준곤 목사님께서 작성하셨던 [춘천성시화 노후도]란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춘천성시화의 미래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저는 춘천시민의 50% 이상이 예수를 믿게 되면 춘천의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되면 춘천의 정치, 사회, 경제, 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활동하게 되고, 춘천의 모든 것이 기독교적인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며, 춘천의 시민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시민의 회도 조례와 규정을 제정하여 시정도 기도하고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국 춘천을 기독교 특구로 만들어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각광받는 범죄없는 도시, 아름다운 도시가 될 것입니다.

장: 장로님 말씀을 들으면서, 성시화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를 통해서 시민의 50%이상 기독교인을 만드는 것이 제일 먼저 이루어야 할 선결요소는 아닌가 합니다.

조: 맞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근래에 전도에 관심을 가지고,

전도훈련을 실시하고, 전도율 하여 한 달 평균 50명 이상의 사람들이 등록하고 있습니다.

조영: 전도와 함께 성시화운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장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 기도를 많이 해야합니다. 그리고 다시말하지만 전도를 해야 합니다. 밀로만 하고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하기 위해서 몸으로 부딪쳐야 합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에 전도의 열기가 전국적으로 일어난 것은 70년대입니다. 저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한 중요한 원인을 대학생 선교회(CCC)가 민족복음화 운동의 일환으로 실시한 민족복음화요원 감습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민족복음화요원 감습회를 통해서 전도요원을 훈련시킨 것이 계기가 되어 전도의 부흥이 일어났고, 이후에 한국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지금 다시 그러한 전도의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춘천의 전 교회에 전도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춘천성시화는 앞당겨 지겠지요.

김: 장로님, 저는 뒤늦게 성시화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성시화운동이 자체에 대해 확산되어야 할 필요성이 급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조: 맞습니다. 저희들이 성시회 기도모임이나 성시화 집회를 통해서

춘천이 성시화 되기 위해서는 기독교 복자기관과 손을 잡고, 협력을 잘 해야만 합니다. 지역의 교회가 내 교회에서만 일하려 하지 말고, 내 교회를 떠나서 기독교 복자기관과 연계해서 일을 하면 춘천 성시화를 위한 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언론계와 마찬가지로 복자계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먼저 사명감이 있어야만 합니다. 단순히 취임의 방편으로 언론계를 택하고, 사회복지계를 택하면 그 사람이나 기관에도 별로 유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소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불평이 생기고 어려움이 오면 이겨내지 못하게 됩니다.

장: 현재 춘천을 춘천교회에서 춘천성시화운동의 일환으로 전개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요?

조: 지역교회에서 행해지는 전도와 사회 복지차원의 사역이 활성화 되어지면 결국 성시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김주환 목사님은 성시화운동에 비전과 열의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1972년 4월에 춘천에서 개척하시고, 10월에 있었던 춘천성시화대회를 통해서 성시화에 대한 비전을 가지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김주환 목사님의 지도력 아래서 성시화할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 성도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인 사랑의 집을 통한 사회복지사역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영: 장로님, 많은 생애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고 있다면 무엇일까요?

조: 현재 섬기고 있는 해인 사랑의 집 사역을 발전시켜 나가는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싶습니다. 노인들이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면서, 복지관은 아니지만, 복지관에 준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남은 생애 동안에 감당하고 싶습니다.

장: 장로님, 춘천기독교연합회와 춘천성시화운동본부 그리고 모든 단체에서 제1회 대회에 참여한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실까 합니다.

조: 춘천성시화는 가구나 조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소수의 비전과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구심점이 되어서 '위로부터 주어지는 능력 혹은 힘'을 받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열정입니다. 그리고 서로 양보와 화해해서 일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와 함께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이들을 이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양성을 가지고 임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처럼 절대적 희생을 해야 합니다. 시간, 물질 등을 희생하면서 섬겨야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부족한 자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 남 진 (趙南震)

1932년생
1957 강원대학교 졸업
1990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56-92 강원일보 기자, 정치부장, 편집국장, 상무, 전무
95-98 강원일보 사장
92-2002 불미직 감행처부장 본부 부회장
1996 춘천올림픽대회 초대 회장
1996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초대 본부장
1998 춘천성시신문 초대 발행인
2000 한국올림픽대회 부회장



일시: 2004년 7월 21일, 오후 3:00 / 순복음춘천교회
최담: 조남진 장로(이하 조), 조영춘 목사(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이하 조영), 정재호 목사(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이하 정), 김미경 간사(성시화운동본부 간사, 이하 김), 이원기 집사(성시화운동본부 인터넷 미디어 선교부) 글정리: 편집부

인도 비하르 선교 프로젝트

비하르 선교협의회 총무/이 상 용 전도사

인구 1억에 가까운 엄청난 인구, 그리고 최고의 가난과 폭력의 땅 인도에서 가장 열악한 비하르주의 선교는 그이말로 선교의 최전선으로 그 명성이 '선교사의 무덤'으로 잘 알려져 있다. 가난과 비위생적인 환경 그리고 힌두 과격주의자들의 폭력으로 인해서 선교는 아주 어려운 형편이다.

그러나 7년 전, 1997년 우리 춘천 출신인 이영길 선교사 가정(한국선교사로는 인도 비하르에서 최초로 사역)이 춘천의 예수가족으로부터 그곳에 파송되면서 그곳에 대해 알게 되어 관심을 갖게 되었다.

사역의 초기부터 베드로 선교센터의 협력으로 기도세미나가 매년 진행이 되었고, 2000년을 접어들면서 데카폴리스 프로젝트(Decapolis Project)로 그곳 10개 도시를 다니면서 기도행진을 하였다.

춘천의 여러 목회자들도 참여하여서 활발히 진행되어가 힌두 과격주의자들의 테러와 폭력으로 현재는 잠시 멈춘 상태이다.

초기부터 6개월 과정의 제자학교가 진행되어서 비하르 선교 헌신자가 인도 현지인과 한국인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었다. 현재는 까피하르에서 현지인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에는 CCF를 중심으로 비하르를 중점 입양하다시피하여 그곳에 신학교사역과 문맹퇴치학교 등 그 외 여러 선교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더디지만 점진적으로 열매가 맺히리라 믿고, 비하르 선교 협의회(회장 김종호 목사·효자감리교회)는 월 1회 연합 기도 모임을 갖고 있다. 그리고 금년에는 가나안농촌학교와 협력하여 인도 비하르에 농촌학교를 세우면서 미션스쿨도 세우려고 준비중이다.

우리 춘천의 자량으로 가장 어려운 지역인 비하르에서 일하는 이영길 선교사를 지원하는 비하르 선교 협의회는 지금도 기도하고 힘써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 9월 14일(화) 주간에는 인도 비하르로 기도행진을 겸한 선교여행을 준비하고 있다. 김법일 장로(가나안 농촌학교)와 지역목회자 약 15명이 지원하였으며 계속하여 이에 동참할 분들을 모집하고 있다.

주님의 마지막 명령은 우리의 첫번째 관심이

다. 금년에는 인도 비하르 선교의 중요한 전환의 해이다.

인도 비하르를 위해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라면서, 우리 춘천의 많은 교회들이 한 도시와 한 종족을 입양하여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 9월 14일(화) 마나는 인도 비하르 선교 여행을 위해 5월 29일(주)~9월 1일(수) 광명감리교회에서 저녁집회를 갖는다.

* 8월 16일 나눔성결교회 청년부 중심으로 인도 비하르 선교여행을 위해 매주 최은순 선교사에게 힌디(인도어)를 배우고 있다.



제5회 춘천 성시화 도시전도

춘천CCC대표 / 정 경 호 목사

1972년에 시작된 춘천성시운동은 호반의 도시 춘천을 기록하고,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운동이다. 근본적으로 복음화 운동이며 사람이 예수로 새로워지면 가정과 사회와 도시, 국가가 새로워진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춘천성시화운동은 역사성을 지니고 있으며 전국 각 주요 도시로 확산되고 있다.

성시운동의 행동대원으로 대학생들이 그 중심에 있으며 전도훈련과 전도가 실천되어야 한다. 교회가 복음으로 개인과 사회를 변혁시키기 위해 행동 그룹으로 청년과 대학생들의 헌신을 필요로 한다.

교회는 세상안에 있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할 사명을 지니고 있다. 교회의 기록성은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세상을 선교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도시화의 기원은 여러고이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시작은 BC1950년에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도시들과 연결되어 있다. 기독교 또한 AD33년 예루살렘 오순절 성령강림으로 급속한 전도가

가 시작됨으로 도시현상 속에서 탄생하였다.

예수님은 도시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였고 제자들은 이스라엘 도시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인의 잃어버린 양에게 보내셨다.마10:23,19:28) 바울 역시 도시에서 태어나고 도시문화를 기반으로 교회를 설립했다. 바울이 교회를 세웠던 모든 도시들은 그리스 시민화, 유대화, 상업적으로 중요한 로마의 중심이 되었다. 최근 도시화의 현상은 급속도로 전진되어 도시는 선교의 중심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성경적인 의미를 찾아서 춘천시민들 전도의 대상으로 한 도시전도사역을 계획하였다. 춘천 성시화 도시 전도는 춘천시민을 대상으로 2000년에 시작하여 5년째 사역이 진행되고 있다. 춘천도시전도의 기본전략은 세 가지이다. 첫째는 복음전도의 절대가치를 두고, 춘천시민 한 사람도 지옥까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다. 둘째는 민족의 미래의 지도자가 될 대학생들을 복음전도자로 훈련하는 것이다. 해마다 CCC전국 대학생수련회가 열리는데 최근 5년 동안은 춘천인근에서 개최되었

다. 이들 중 일부를 춘천으로 초대하여 수련회 기간 동안 비전을 주고 기도하고 훈련하는 것을 실천하게 하는 사역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셋째는 춘천의 교회가 대학생 전도요원과 함께 전도함으로 교인들로 하여금 전도의 실천과 훈련의 기회를 갖게 한다.

이런 사역에 온누리 교회(김창환 목사사무)를 비롯한 18개 교회에 6개 지역에서 모인 159명의 대학생들이 참가했다. 6월 28일~7월 2일까지 든내 현대성우리조토에서 전도요원 훈련을 받은 대학생들이 7월 5일까지 3일간 전도 사역이 진행되었다. 사영리 소책자를 통해 복음을 전한 수는 1271명이며 그 중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463명이다. 길거리 전도와 아파트 전도 등 다양한 전도집회를 시도했으나, 많은 사람들이 냉소적이고 무관심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전도대원들은 잃은 양을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장미와 더위를 견디고 성령 충만한 사역을 감당하였다. 성경학교를 열어 어린이 전도에도 많은 성과가 있었고, 저녁에는 교인들을 대상으로 전도훈련 강습회도 열렸다.

미자립교회를 위해 베드로병원(조은제 목사)과 영광한의원(이용규 장로)에서 재정지원을 하였다.

일손이 부족한 교회는 학생들이 스스로 식사를 해결하기도 했다. 성시운동본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각 교회의 협력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에벤실과

생일, 결혼, 군진, 효도 대표 김 정 환 안수집사

문병, 개업식 각종 기념일

행사에 필요한 과일

문안카드와 함께

배달에 드립니다.

전화 주문

(033)242-5252

256-5252

천안기획

since 1978

대표 전 천 일 안수집사 (순복음춘천교회)

www.chunill.com

1001design@hanmail.net

(동성교회 앞 우영유통 뒤) * 디자이너 : 박은진, 전남희

Tel. 033) 255-5722 * 기술담당 : 박승기, 김효운

Fax. 033) 256-5722

디자이너 (구인)

신앙을 가진 동역자를 찾습니다. 작은투자로 뜻있는 분 상담비합니다.

3월 클럽 어린이 전도자 훈련을 마치고...

어린이 전도협회 / 전 영 진 간사

지난 7월5일~9일까지 천안 병천에서 충청지역 7개 지회와 춘천지회가 연합으로 '여름 3월 클럽 어린이 전도자 훈련'을 하였다. 36명의 훈련생들이 배우고 익힌 전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장대비를 들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어린 영혼을 향해 나아갔을 때 이분들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셔서 3월 동안 684명의 어린이를 만나 복음을 전하고, 그중 501명의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였다. 영접한 대부분의 어린이들의 명단이 현재 인근 교회로 인계되어 지속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시종일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다.

훈련생들은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다고, 영혼의 소중함과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끈끈한 사랑을 느꼈다." 라고 말하였다. 이 훈련생들은 각자의 교회로 돌아가서 적어도 2회 이상 3월 클럽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이분들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해본다.

3월 클럽 어린이 전도자 훈련은 매 여름(7월 초 또는 8월초)과 겨울(1월 초)에 실시하며, 방학 중 동네에서 놀고 있는 불신 어린이들을 모아 3월 동안 같은 장소, 같은 시간대에 약 한 시간 정도 재미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준 후 교회로 인도하는 불신 어린이 전도 전문 훈련이다. 전도자 한 사람이 훈련되어 드리지만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수많은 어린 영혼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자녀 되는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저희 어린이 전도협회의 전도 프로그램에 동참하십시오. 자세한 문의는 253-1443으로...

예수 전도단 'mission conference'를 마치고...

예수 전도단 / 유 은 영 간사

지난 7월5일~9일 4박5일 동안 대전 목원대에서 청년 대학생 약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mission conference'가 진행되었다.

예수전도단 홍성건 목사의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삶, GO 대표이신 주누가 선교사의 '선교도의 헌신'이란 주제로 말씀이 전해졌고, 마지막 날 탕크목사로 잘 알려진 홍민기 목사의 '캠퍼스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말씀하였다.

"죄"라는 의미가 많이 희미해진 지금의 젊은 세대에게 있어서 우리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기록해야 하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용서되어지고 새로워진다는 것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선교"하면 막연하고 두렵기도 한 것들이 주누가 선교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부르심이며 모든 세대, 모든 열방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그 일에 순종하는 삶이 곧 선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지막 날 홍민기 목사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든 것은 지금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시작해야함을... 캠퍼스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청년들의 삶이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성실과 정직으로 교회 안에서의 열정이 아닌 세상 속에서의 열정을 갖고 살아가야 함을 알게 되었고, 그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앞으로 청년 대학생들이 교회와 가정 그리고 캠퍼스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부흥을 일으키는 세대로 일어나기를 소망한다.

젊은이들이여~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갖자!

강원 IVF 'Speaking of Jesus'를
마치고...

IVF / 유 승 태 간사

강원 IVF는 지난 6월28일~7월10일까지 2주간에 걸쳐 'Speaking of Jesus'라는 주제로 열린 수련회와 훈련을 통해 춘천지역에 있는 200여명의 학생들에게 캠퍼스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온전히 복음을 증거하며 살 것을 도전하였다. IVF는 지역별로 수련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매년 춘천지역에 있는 3개의 4년제 대학과 2개의 2년제 대학에서 활동하는 학생 200여명이 참여하여 수련회와 훈련을 함께하고 있다.

이번 수련회는 추구팀(불신자)과 일반팀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추구팀은 신동렬 전도사의 일주일간의 복음에 대한 소개와 설교를 통해 15명의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일반팀은 중앙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최영걸 간사의 디모데후서와 학개서 강해를 통해 학생들에게 복음 안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을 도전하였다. 특별히 둘째주 7월5일~10일까지는 학년별로 훈련이 진행되어 공동체 및 기독교의 기본진리를 알아가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다. 수련회와 훈련에 이어 단기 비전트립이 계속해서 이어졌다. 중국, 중앙아시아, 필리핀, 일본 등 4개 팀이 지난 1년간 훈련을 통해 준비해왔고, 2주간의 기간을 통해 이 지역을 방문하여 현지 선교사님과 협력사역을 감당하였다.

앞으로도 수련회와 훈련을 통해 캠퍼스에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더 많이 일어나길 기대해 본다.

JDM 집회를 통해 예수님을
만게 되었어요.

최 보 미 (강원대 1학년)

사실 처음에는 집회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 핑계를 대면서 안 오려고 했는데, 간사님과 은하 언니의 반 강제적 협박(?)으로 인해 오후에만 참여하게 되었다. 은하언니는 자신의 경험담을 얘기하면서 오길 잡했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평소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이지만, 소그룹에 처음 참여할 때부터 많은 사람들의 관심으로 인해 금방 마음을 열고 친해질 수 있었다. 소그룹의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고, 저녁에는 믿음의 선배들의 간증, 그리고 간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지금까지 몰랐던 부분들을 알게 되었다. 더불어 굳게 닫혔던 마음도 많이 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가 왜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을 닫고, 두껍고 높은 벽을 쌓아두고 있었을까? 후회하기 시작했다.

집회에 참여하면서 가장 감사드리는 것은 좋은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된 것이다. 강원대 모임을 통해서도 느낀 것이지만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도 아무런 불편이나 의심, 허물없이 마음을 터놓고 친해질 수 있었다. 집회를 통해 축복받은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을 연 것, 그리고 하나님께로 좀 더 가까이 간 것이다. 그리고 좋은 사람들을 만난 것이다. 어느 곳에 가서 또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다.



강원문구

대표 : 김 칠 렬
(중앙성교회 안수집사)

종합운동장 건너편

☎ 033) 252-0563
011-9959-0563



POINX 포이닉스 석사점
부엌가구/불박이장/거실장
학생용가구/신발장/악세서리

대표 : 구 본 석
(갈릴리 교회 집사)

석사사거리에서 박물관사이
만리카옌(심선생어학원 건너편)

☎ 033) 262-1931
033) 255-7581
011-9799-7581





웰빙의 새 시대

The New age of Well-Being



기독교환경운동연대가 발표한
'녹색 기독교인 10대령'

1. 일회용품 사용 금지
2. 대중교통 이용
3. 합성세제 사용 절제
4. 중고용품 재활용
5. 물과 전기 절약
6. 육식 줄이기
7. 여유있는 생활습관
8. 소비 자극하는 광고 추방
9. 심플한 삶의 방식
10. 가난한 이웃을 돕기 운동

1. 들머리

웰빙의 열풍이 불고 있다. 수많은 문화적 컨셉 중에서 요즘 그 주기가 가장 급상승한 것이 '웰빙'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웰빙 와인, 웰빙 농산물, 웰빙 화장품, 웰빙 가전제품, 웰빙 아파트 등은 더 이상 낯설지 않은 말이 되어버렸고, 웰빙의 대표적인 코드인 요가나 명상도 크게 유행하고 있다.

이처럼 최근 들어 어느 불연가 우리 삶 곳곳에 깊이 확산되어버린 '웰빙'은 말 그대로 건강한 well, 안락한·만족한 인생(living)을 살자는 뜻으로서 쉽게 생각하면 '잘 먹고 잘 살자'는 것인데 무엇보다도 건강과 관계된 모든 것이 다 웰빙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이미 1949년에 설립된 세계보건기구(WHO)의 창립 헌장에서 건강에 대한 정의가 '웰빙'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즉 '건강이란 단지 질병이나 쇠약이 없는 상태뿐만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 안녕(well-being)까지를 포함하는 완전한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더 나아가 1998년에는 WHO 집행이사회가 건강의 정의에 '영적(spiritual) 요소'를 추가하였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웰빙의 열풍을 논할 때 그 영적인 면을 간과한다면 웰빙의 궁극적인 실체는 정확히 드러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웰빙으로 인류에게 다가왔던 몇몇 주요한 영적 사건들을 역사적 순서에 따라 고찰하면서 함께 이 시대를 진단해보도록 하겠다.

2. 옛뱀 (that Old Serpent, 계12:9, 20:2)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창조의 클라이막스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창1:27). 아울러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다(창1:28).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고 '매우 좋았다'고 말씀하셨다(창1:31).

즉 하나님께서는 옛세간의 창조를 통해 완전한 웰빙의 상태를 아담과 이브에게 허락해주었다. 그런데 뱀(Satan)은 이브에게 다가와 예뻐한 한가운데 있는 '산아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결코 죽지 아니할 뿐더러 눈이 열리고, 신들과 같이 되며, 또한 선악을 알게 된다고 속삭였다. 즉 뱀은 하나님께서 이미 마련해주신 기존의 절대적인 웰빙을 부정하면서 이전에 몰랐던 '새로운 웰빙의 시대'가 올 수 있다고 이브를 미혹한 것이었다. 그래서 이브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 부부가 함께 하나님께 감사할 열매를 먹게 되었다. 그러자 이브에게는 고통과 수태가 크게 더하여졌고, 아담은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게 되었으며 땅도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성경가 나게 되었다. 결국 아담과 이브와 그 후손들은 흠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창3:16-19).

이처럼 인류역사상 최초로 시도된 인본주의 웰빙으로 말미암아 초래된 새 시대는 끝없는 저주 그 자체일 뿐이었다. 그러나 인간을 미혹하였던 옛 뱀의 방법론 곧 범신론(萬神論)이 신들과 같이 되리라, 윤회론(輪廻論)이 정녕 죽지 아니하리라, 상대론(相對論)이 선악을 알리라, 밀교주의(秘敎主義)의 눈이 밝아지리라 등 '새 시대'를 열어준다고 하는 교리는 인류역사의 각 시대마다 변하지 않고 웰빙의 새 시대를 추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계속해서 사용되어져 왔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있으며 구원받지 못한 인간이 추구하는 웰빙이란 항상 죄와 불의의 길로 향할 뿐이기 때문이었다(약1:15, 롬3:10-18).

3. 실낙원 (失樂園, Paradise Lost)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이땅의 장난인 가인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라 에녹이란 도시를 세웠다(창4:17).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후손들이 번성하기 시작하였다.

"에녹이 아빳을 낳고 아빳은 므후아엘을 낳고 므후아엘은 므두사엘을 낳았고 므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디요, 다른 하나의 이름은 실라더라. 아디는 아빳을 낳았으니... 실라도 두 딸가인을 낳았으니... 두 딸가인의 누이는 나아미더라." (창4:18-22)

가인의 후손들이 급속도로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자 도시가 생겼고 건축, 음악, 미술, 금속 등의 문명과 문화가 발달하게 되었다. 가인부터 시작하여 여섯 번째 세대인 라멕은 '정복자'란 뜻을 갖고 있는데 역사상 최초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부러이(一夫一妻)를 거슬러나간다. 아울러 두 부인과 딸들의 이름(Adah: 헤라, Zillah: 그늘, Naamah: 귀여움)에서 유추해 보건대 라멕의 문화는 육체이며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즉 실낙원의 불행은 만화해보려고 인간들이 추구하였던 웰빙은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더욱 멀어지는 것이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지면에 번성하면서 사람의 사악함과 폭력이 땅에 가득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홍수로서 인류를 땅과 함께 멸하게 되신 것이었다.

4. 노아의 홍수(Noah's Flood)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지구의 환경이 사람들이 살기에 더욱 나빠진 가운데 시간이 흘러 사람들은 동방으로 이주하기 시작하였다. 이 바옥한 메소포타미아 땅에 사람들이 비밀로 도시를 세웠고, 야수로부터 그들의 안전과 평화의 위해 강력한 자 니므롯을 지도자로 삼게 되었다. 즉 니므롯은 사람들에게 홍수로 인해 초래된 갖가지 불행에 극복하고 그들의 웰빙을 보장해준다는 역사 이래 처음으로 자신의 왕국 곧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는 인본주의 왕국인 바빌론 왕국을 세우게 된 것이다(창10:10-11:4).

그런데 일렉터 허슬롭 등에 의하면 본래 사냥꾼인 니므롯이 천하를 장악한 후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은 백성들의 기억 속에서 주 하나님을 없애버리는 일이었다. 그래서 그는 신왕의 지위를 선포하고 새로운 신화들을 만들어서 보급하였다. 즉 진리의 근본이며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근원인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을 없애버리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모든 일에 '시작'과 '끝'이 있다는(곧 성경의 빠대인) '창조론'과 '종말론'을 없애기 위해 니므롯의 신본은 홍수 이전의 인본인 인간의 환생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 가인은 아담의 후손이라고 하면 그 위에서 다시 하나님과 만나게 되므로 창세기의 이야기에 '태양의 신'을 삼입하고 그 빛의 신(Lucifer)이 이브와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가인이라고 주장하게 되었다. 그 다음 단계로 '천지가 늘 그대로 있다'고 하는 또 다른 윤회설의 기반도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한두교와 불교의 바탕이 되었고 다윈의 진화론을 만들어낸 씨앗이 되었다.

즉 환생설이란 토대 위에 단일론과 범신론 등이 혼합되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새 시대 운동'은 니므롯의 시대에 들어 비로소 체계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도 사람들은 바빌론의 왕 니므롯이 '웰빙'으로 포장해 놓은 이러한 거짓말에 속아서 살아간다.

5. 마무리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well-being)이다. 그래서 웰빙의 열풍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욕에 대한 근심은 지나치고 영의 근심은 '기갈'이 아닐까 생기를 요한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까?

#내가 누구보다 더 신뢰하는 웰빙비결

자녀들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엡6:1-3) (반집부)



정직, 성실로 앞서는 기업
그린주유소

대표 : 이 상 우 집사
(소양제일 교회)

퇴계동 아이마트 앞
033) 262-6500

새 주인을 찾습니다

춘천 기독교서점
(내년 인도 선교사 파송 예정)

대표 : 유 인 순 집사

☎ 033) 257-5725
019-319-6837

기독교연합회 행사들

♡ 성결인 대회

6월27일(주일) 오후3시 춘천중앙성결교회에서 성결교단의 강원 서지방회 주최로 성결인 대회를 가졌다.

김기찬 목사의 환영과 개회선언, 신재원 목사의 공동 기도는 낭독, 유동선 목사와 이원호 목사의 설교, 차용한 목사의 비전 선언은 낭독, 윤철중 목사의 축도로 대회를 마쳤다.

이번 대회를 통하여 100만 성결성도와 3천 성결교회가 이 땅 위에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북한과 사회선교, 그리고 2007년 영적대부흥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 사랑의 모금만찬



7월9일(금) 오후6시30분 춘천베어스관 공호텔에서 제4회 강원도민 아주 특별한 사랑나눔기 사랑의 모금만찬회를 가졌다.

강원도민일보사와 월드비전 강원지부의 주최로 이루어진 이 행사를 통한 모금은 도내의 결식아동과 저소득 가정, 영·유아 교육비로 지원되고, 북한의 씨앗자 사업과 육아시설, 미안마의 굶주리는 어린이를 위해 지원된다.

♡ 사랑의 집짓기 번개건축

8월2일(월)~7일(토) 함축하며 자율봉사활동을 실시한다. 내국인180명, 외국인(일본) 40명 등이 봉사한다.

또 7월28일(수)은 싸이클링 행사로 40여명이 부산에서부터 자전거를 타고 건축비 모금행진을 하여 춘천에 끝인하였다.

♡ 구국 기도회



7월17일(토) 오전7시 석사거리교회 갈멜산 기도실에서 춘천기독교직장선교회 연합회 주최로 '전국 지역별 연합 중보기도 제2회 공의와 사랑실현 구국기도회'가 있었다.

김철수 장로의 사회, 손화균 목사의 설교, 그리고 민족복음화와 영적부흥, 가정과 직장복음화, 사회·정치·경제·문화·교육을 위해, 교회와 목회자, 북한과 통일, 세계복음화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 친선 축구대회



7월15일(목) 오후5시 공지천 인조잔디구장에서 춘천 목회자 축구선교단과 춘천제일장로교회 마하나임 축구선교단의 친선축구대회가 있었다.

이날 경기에서 목회자팀이 3대2로 이겼다. 이후 19일(월)에도 목회자 축구선교단은 헤브론 축구단과의 친선경기도 가졌다. 또 마하나임 팀은 7월17일(토) 파주 트레이닝센터에서 열린 '제1회 할렐루야컵 전국교회 대항 축구대회'에 강원도 대표로 참가하여 8강에 올라갔다.

♡ 아버지 학교 수료

아버지 학교 춘천유치를 위해 순복음춘천교회 주축으로 약 15명이 등례시에서 열린 '아버지학교'에 참석하여 7월11일 수료하였다.

♡ 춘천성시화를 위한 목요중보기도회



7월22일(목) 오후7시30분 예광침례교회에서 춘천성시화를 위한 정기기도모임을 가졌다. 17명의 목사와 평신도가 함께 춘천의 정치, 사회, 문화,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계속하여 다양한 계층 가운데서 이러한 기도 운동이 일어나길 소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목요기도회는 매달 셋째주 목요일에 모임을 갖는다.

♡ 춘천성시화를 위한 실행위원 순회예배



7월4일(주일) 오후3시 춘천제일장로교회에서 춘천성시화운동본부의 일부 실행위원들과 성도들이 춘천성시화를 위한 예배를 드렸다. 박상호 목사의 진행과 이학규 장로의 기도, 그리고 '교회와 성시화운동'이란 주제로 조영춘 목사(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가 설교, 정경호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 전·의경 세례 감사예배



7월14일(수) 낮12시 강원지방경찰청 대회의실에서 5명의 전·의경들에게 세례를 베풀기 위한 감사예배가 있었다. 오승룡 목사의 사회, 김동만 목사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관'이라는 제목으로 이세용 목사에 장합동경목부장이 설교를 하였고, 이세용 목사가 세례식을 집례 하였으며, 박상호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글: 편집부)



여성의류 · 결혼예복 전문

랑시벨라

대표 : 전 은 풍 장로

중앙로 2가 37-3
(한국투자신탁 길 건너)

☎ 033) 255-6969
011-9793-5113

이옥희 세무사

대표 : 이 옥 의 권사

1. 장부기장, 세금신고, 세무조사 진술대리
2. 양도, 상속, 증여세, 세무상담 및 신고대리
3. 과세 액부심사 및 조세불복 인정대리

춘천시 중앙로 2가 37-3 (한국투자신탁 길 건너)
Tel : 241-1700 / H · P 017-373-6969



“작은 사람을 통해 나타는 큰 역사”

조영춘 목사

“작은 여인”이란 책은 그레디스 아일워드라는 선교사의 이야기다. 아주 평범했던 영국의 하녀 출신의 여인이 주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 그 당시 완전히 오지였던 중국에 대한 소명을 품게 된다. 그러나 중국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고, 아무도 이 여인을 주목하여 후원할 단체도 없었다. 언어는 물론 목적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믿음으로 그 발견을 옮긴 연약한 20대 여인의 삶의 여정이 이 책에 그려져 있다.

평범한 여인 그러나 주님의 손에 그의 인생을 위탁되었을 때 결코 평범할 수 없는 특별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처럼 쓰임받게 되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게 된다. 심지어 라미사원의 500여 스님들을 인도하는 장면은 정말 놀라울뿐이다. 더더욱 교도소에서 엄청난 영적부흥을 일으키는 모습들은 마음을 떨리게 할 정도였다. 한 작은 여인의 헌신과 희생이 주는 큰 의미를 볼 수 있다.

작은 사람들을 통해 나타나는 큰 역사, 이는 실로 이 책에만 나오는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30여년 전에 시작되었던 아주 작은 회심한 이들의 성경그룹에서 기도하며 시작된 성시화에 대한 꿈과 비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30여년을 지나면서 성시화의 모델을 바탕으로 민족 복음화가 시작되고, 이를 통해 250만의 기독교인들이 10년 만에 약 일천만을 헤아리는 대 부흥의 발판이 된 것을 볼 때 놀랄 수 밖에 없다. 지금은 성시화운동이 전국의 약 22개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시작되고 있고, 일본, 미국, 그리고 남미에서는 도시복음화가 전략이 되어 엄청난 부흥의 운동으로 변화되고 있다.

정말 놀라운 이런 역사에 부흥의 불씨를 일으킨 도시

가 춘천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지만 큰 시작이 되었던 성시화의 현장에 우리가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지나간 작은 시작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야 한다. 또 다시 불씨가 되어 이 땅의 25%의 복음화의 장벽을 허물며 50%에서 70%의 영적 장벽을 허물아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 춘천이 불만 일으켰지 실상 아직 두렵힌 영적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지는 못한 것이 사실이다. 불만 불었다 꺼진 숯김방이의 성시화가 되어서는 안된다.

때를 아는 것이 지혜라고 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이때 이 도시에 살게 하셨다는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야 한다.

작은 여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온다. “너는 먼저 움직여야 하고 내가 가진 조그만 인력과 안전을 포기해야 한다.” 그 내적 음성을 듣고 움직이던 작은 여인의 헌신과 같은 도전을 품고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세, 다윗, 요셉이 일어나길 위해 간절히 마음으로 기도해 본다.

알려드려요

◆ 예수사랑운동

‘제8회 청소년을 위한 예수 캠프’

- 주제: ‘산상수훈’
- 일시: 8월4일(수) ~ 7일(토)
- 장소: 화천 반석수양관
- 문의: 244-5400 / 019-538-3235

◆ 한국대학생선교회(C.C.C)

- 1) 동아시아 단기 선교
 - 일시: 8월9일(월) ~ 21일(토)
- 2) 광야 훈련
 - 일시: 8월23일(월) ~ 26일(목)
 - 장소: 춘천에서 동해안까지 전도훈련
 - 문의: 254-5776 / 011-216-3621

◆ 예수전도단

- 1) Grace Conference(가정전도학교)
 - 주제: 거룩함/신분/성령의 능력/사명
 - 일시: 8월11일(수) ~ 14일(토)
 - 장소: 대전 목원대학교
- 2) 독수리 예수 제자 훈련학교(BEDTS)
 - 일시: 2004년9월3일 ~ 2005년2월12일
 - 시간: 금요일 저녁 7시~10시
 - 토요일 오후 3시~9시
 - 대상: 만18세 이상의 그리스도인, 직장인, 주부, 일반인
 - 문의: 252-1128 / 011-9490-6612

◆ JDM

- 1) 기독교장로회 수양회
 - 일시: 8월2일(월) ~ 6일(금)
 - 장소: 춘천 WDTI
- 2) MPI(선교사훈련)
 - 일시: 8월2일(월) ~ 20일(금)
 - 장소: 국제선교훈련원(IMPI)

◆ IVF

- 1) 학기 사역을 위한 준비캠프
 - 일시: 8월23일(월)~28일(토)
 - 장소: IVF 회관(아시아 선교원)

◆ 어린이 전도협회

- 1) 2차 3일 클립 어린이 전도자 훈련(3DC)
 - 일시: 8월2일(월) ~ 6일(금)
 - 장소: 속초
 - 대상: 교사, 중고등학생, 선교사지망생, 신학생, 교회학교 담당자 등
- 2) 어린이 성경캠프
 - 일시: 8월10일(화) ~ 13일(금)
 - 장소: 속초 진부령 기도원
 - 대상: 초등학교 4,5,6학년
- 3) TCE 전도자 대학#1 25기 모집
 - 이론강의: 8월23일(월)~28일(토)
 - 오전9:30~1:00
 - 전도실습: 9월~11월 중 12주간
 - 매주 1일 1회
 - 장소: 춘천시회 사무실(베드로정형외과 4층)
 - 문의: 253-1443 / 018-292-8839

◆ 베드로선교센터

- 1) 세계선교연구원
 - 1차 7월18일(일) ~ 8월6일(금)
 - 장소: 태국 방콕
 - 2차 8월9일(월) ~ 20일(금)
 - 장소: 베드로선교센터 5층 2호 강의실

◆ CCF교회 인도 비아르 선교여행

- 일시: 8월16일(월)~25일(수)
- 대상: 청년부
- 문의: 251-9191 / 011-399-2939

<성시화 후원자 명단>

후원계좌: 농협 203-02-280238 조남진
 조흥 716-01-001389 조남진
 국민 301-01-0585-522 조남진
 우체국 200022-02-129749 조남진

(성시화를 위한 구독연금에 동참합니다)

남춘천김리교회	늘사랑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순복음하나교회
시암중앙교회	소양성결교회
사랑의교회	열린교회
중앙장로교회	춘천석사교회
춘천동부교회	천일현수막
앤투어	김길홍
김현철	김영명
민병입	박동환
성기운	신성균
신종철	안미애
안정숙	엄필남
오흥수	이용규
이관호	이학규
유근창	장기영
정찬복	조은제
최경용	최상호
최치광	한희현
황병찬	허순영
홍성운	홍순복



기독교대한성경연구소 순복음춘천교회

표어: 총력으로 전도하여 배가 부를 이룩하자(막16:15)

담임목사 김주환



200-852 강원도 춘천시 동면 만천리 595-1/ ☎(교회) 253-2741 (담회장실) 253-2742

영혼을 부요와 비전으로 안내하는
 기독교대한성경연구소 춘천광영교회

“섬기고 나누며 즐거워하는 교회”

담임목사 박인관

말씀이 넘치는 부요한 교회
 영혼구원에 열심 있는 교회
 사랑의 실천이 넘치는 교회
 치유 돌봄에 동참하는 교회
 기쁨과 감사하는 교회

부소속목사 박성령 김경호
 전도사 최성찬
 장로 박동순 함천용
 민관식

200-180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728-8
 ☎ 0339 263-5007 / www.ccls.or.kr

